

본당 소식

♣ 2025년 외국인 공동체 미사(Festa delle Genti)

- 일시 :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 시간 : 10시 30분
- 장소 : Chiesa Parrocchiale della Beata Vergine Addolorata in San Siro

♣ 세례식 : 6월 15일 (삼위일체 대축일)

♣ 모임/회의

- 사목회의 : 6월 1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6.70€ • 교무금 00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전례 성가

- 입당 : 137 (부활하신 주 예수)
- 봉헌 :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 :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 188 (천사의 양식)
- 파견 : 141 (죽음을 이긴)
- 특송 :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 이승희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1일)	다음 주일(6월 8일)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2독서: 구희선 스텔라 복 사: 안태리 소화테레사, 강윤이 헬레나	성령 강림 대축일 공동체 미사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6월 1일 (백)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 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 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

제1독서 (사도행전 1,1-11)

- 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 2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 3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9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10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17-23)

형제 여러분,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18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19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20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21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천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게 하신 것입니다.

22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루카 24.46-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6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5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5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저마다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 성심께 세상을 향한 연민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서로 비난하고 외면하는 남과 북을 살피 주시어,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3. 홍보 주일을 맞아,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은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 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